마케팅원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난은 세금징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시오.

허영주(마케팅원론)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1.서론**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심하게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코레일은 대규모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처지의 인천공항공사 또한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지원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지속적인 적자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 이상 세금으로 재정난을 해결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겪는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본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공공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손실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에 최하등급인 E등급을 부여했다. 36개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130개 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제일 낮은 E등급이다.

코레일은 2015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이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지만 요금은 오르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다. 적자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ㄴ다.

동결된 요금, 경쟁력 약화, 무인승차로 인한 손실 등 다방면으로 해결이 필요하며 철도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코레일의 적자 근본 원인을 살펴보려면 철도산업 자체가 21세기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마케팅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하철 역사 개발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지역별 휴게소마다 특색있는 메뉴를 전력으로 밀어 유명해진 메뉴들이 있다. 사람들은 맛있다고 입소문을 타면 해당 휴게소에 굳이 방문해서 갈 만큼 요즘은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재미가 하나의 문화로 잡혀있다. 지하철 역사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 해당 역사에 다양한 먹거리 구역을 개발하고 그 역사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간식 또는 식당을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얘상된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항공수요의 성장세로 2004년 이후 흑자를 달성해 왔으며, 정부배당금 납입을 통해 그동안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천공항의 항공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공사 자체 수입원이 크게 줄어들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항공수요에 대한 수요촉진을 위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싶게끔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방송국에서도 해외촬영을 하고있는 추세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관광지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여행 스팟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를 활성화시킴에 따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메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홍보하고 제공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아보인다,

**3.결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며 복잡하고도 슬픈 현실이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적자 현상이 어쩔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그 손해를 계속해서 메꾼다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며 함께 성장하는 사화를 만들어야 한다.

**4. 참고문헌**

*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81121&memberNo=42894257&vType=VERTICAL>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ungmjee/222857620860>

* MoneyS 뉴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1608091287292>

* 인천국제공항공사

<https://www.airport.kr/co/ko/cmm/cmmBbsView.do?FNCT_CODE=121&NTT_ID=24686>

* 이데일리 뉴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169089&memberNo=3939441&vType=VERTICAL>
* 뉴스더원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76>